

【논 문】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을 중심으로 -

석 정 희*

┃ 차 례 ┃

1. 서론
2. 소세키와 시대적 상황
3. 만한 여행(滿韓旅行)과 소세키의 의식구도의 변화
4. 소세키의 의식구도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5. 결론

국문초록

소세키의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ころどころ)』은 작가가 친구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의 권유를 수락하면서 제도권에 저항하던 그의 이념적 전환을 예고한 작품이다. 기행문의 목적이 식민지개발 현장인 만주와 조선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소세키의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제도를 부정하는 그의 의식구도와 상반되는 의식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만한 이곳저곳』은 풍경과 기관에 대한 설명뿐인 형식적인 내용으로 소세키가 정신적인 의식구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소세키의 중국인을 경시하는 언어구사와 식민지에 대한 무감각한 표현은 일본의 제국주의이념과 전쟁을 묵인하고 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이는 곧, 만한여행(滿韓旅行) 이전, 소세키의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구도 역시 일본을 위한 내셔널리즘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 이른다. 그의 내셔널리즘과 만한여행(滿韓旅行) 중 전쟁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는 차기본위(自己本位) 혹은, ‘일본본위(日本本位)’의 그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 관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하겠다. 소세키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소세키의 기억 '속에 있는 메이지 시대와 전쟁이라는 요소가 눈앞의 현실을 통해 발현되는 계기가 된다. 소세키의 의식구도는 전쟁을 주도하는 시대적 이념에 동화되고 세뇌되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의식구도의 전환점은 무의식상태에서 기억이라는 매개요인이 그의 잠재된 의식세계를 자각시키는 결과 일어나게 되는 행동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세키가 이제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메이지 정신이나 전쟁에 대한 '기억'이라는 중후가 무의식세계, 즉 잠재의식으로 지정되고, 그 '잠재의식'의 발현이 만한여행(滿韓旅行)에 나타나 있음을 본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주제어 : 메이지시대, 만주, 조선, 의식구도

1. 서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 이하 소세키라 칭함)는 1909년 옛 친구이자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06~1945)의 총재인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의 권유로 만주(滿洲) 등을 여행한 계기로 기행문 『만한 이곳저곳(滿韓とところどころ)』(1909)을 발표한다. 그는 1909년 9월 20일에 출발하여 그해 10월 17일의 일정으로 대련(大連), 여순(旅順), 봉천(奉天), 무순(撫順), 장춘(長春), 하얼빈(哈爾濱) 등의 만주(滿洲) 일대와 평양(平壤), 경성(京城), 개성(開城), 인천(仁川), 부산(釜山) 등 조선(朝鮮) 일대를 여행한다. 그리고 소세키는 여행 체험을 10월 21일에서 12월 30일까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게재한다. 그의 기행문은 독립운동가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암살사건으로 12월 30일자로 연재를 마치게 된다. 그의 기행문이 중도에서 단절된 점에 대해서 학계의 논의가 분분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제기되기도 한다.

『만한 이곳저곳』은 다양한 테마의 연구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최명숙(崔明淑)은 소세키가 서구 열강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에서는 전혀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윤상인(尹相仁)은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 식민지의 내지인(內地人)을 이용하여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세키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²⁾ 그리고 유상희(柳相熙)는 소세키의 청일전쟁(淸日戰爭)과 한일합방(韓日合邦)까지의 근대일본문인의 한국인식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제국주의적 의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³⁾ 『만한 이곳저곳』은 여행에서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기술한 만소 요코(滿生洋子) 등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테마로 연구되어지고 있다.⁴⁾ 특히, 『만한 이곳저곳』의 선행연구는 소세키의 제국주의사상과 아시아관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소세키의 사상의 토대가 되는 메이지시대와 전쟁이 만한여행(滿韓旅行)을 통해 그의 의식구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소세키와 시대적 상황

소세키는 1867년에 태어나 막 근대화를 시작하는 메이지 시대(1868~1912)의 과도기적 사회를 경험한 산 증인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은 소세키에게 의식세계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작품의 모티프로 재창출해 낼 기회를 제공한다. 소세키의 출생은 막부(幕府)시대의 사회적 제도인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근대국가의 변형을 가져오는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는 과도기적 사회 속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을 경험하며, 그의

-
- 1) 崔明淑, 1997, 「夏目漱石『滿韓ところどころ』- 明治知識人の限界と『朝鮮・中國人』像, 『國文學: 解釋と鑑賞』 至文堂.
 - 2) 尹相仁, 1992, 『滿韓紀行』, 三好行雄, 『夏目漱石事典』 學燈社.
 - 3) 柳相熙, 2000, 「近代日本文人の 韓國認識- 淸日戰爭에서 韓日合邦까지, 『일본학보』.
 - 4) 滿生洋子, 2005, 「『心細い』漱石- 漱石のアジア觀と『滿韓ところどころ』, 『東アジア比較文化研究』 4; 西村好子, 2002, 「寂しい近代- 『滿韓ところどころ』論, 『國文論叢』; 半田淳子, 2001, 「漱石の異文化体験と明治の身体- 『滿韓ところどころ』を手掛かりに, 『文學と教育』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의식세계 속에는 복잡한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놓은 시공간적인 고통과 시련이 동반되어 갔다. 이노우에 유리코(井上百合子)는 ‘작가의 원체험, 이른바 무의식세계가, 작가의 의식을 초월하여 작품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그 성장 과정이 주목되는 것이지만, 소세키처럼 상당히 강경한 의식을 가지고 소설 제작에 몰두하는 작가의 경우도 역시 예외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의 작품 『도련님(坊っちゃん)』을 보면, 주인공의 ‘에dot코(江戸っ子)’ 기질이 사회제도와 충돌하는 양상과 전통윤리를 고수하고 있는 할멈 기요의 모습에서 이노우에 유리코(井上百合子)가 언급한 대로 그 시대의 경향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의식세계는 메이지시대와 함께 어떤 유형으로 변용되어 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의 개국은 본래 미국인 페리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최초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며, 이를 계기로 여러 유럽과 조약을 맺으면서 시작된다.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 국민은 막부(幕府)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외세배척운동과 존왕양이운동(尊王攘夷運動)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왕정복고를 이룩하게 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것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은 단순한 서구식 근대화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외세에 대항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는 훗날 일본의 호전적인 기질 즉, 제국주의적 기질을 형성하는 데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제국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한 부국강병책을 의도대로 진행시키고 준비해 나간다. 제국의 상징인 천황 정치의 시작은 곧, 정부 주도하의 근대화로 내각제(1885)를 도입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당과 언론이 탄압을 받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종교 분야에서도 신도를 내세우고 기독교와 불교를 탄압하기에 이른다. 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은 국민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황민화하는 데에만 주력한다. 이러한 제국주의

5) 井上百合子, 1953, 「夏目家と塩原家」, 『國文學』, 16쪽.

노선은 단순한 근대화가 아니라 부국강병이 목적인 탓에 굴절된 자본주의의 원형을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된다. 『나는 고양이이다(吾輩は猫である)』(1905)에서는 제국 자본주의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지구가 지축을 회전하는 것은 무슨 작용인지 모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확실히 돈이다. 이 돈의 공력을 깨닫고, 이 돈의 위광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것은 실업가 여러분 이외에 한 사람도 없다.⁶⁾

이처럼 주인공 구사미 선생과 가네다 부인의 갈등구조가 금전으로 인해 파생되며, 『나는 고양이이다』에서는 황금만능주의를 추종하는 제도권과 대치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소세키는 『도련님(坊っちゃん)』(1906)에서 제도권이 가지는 권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월급은 훨씬 많이 받으면서 시간은 적고 게다가 숙직을 면제받다니 불공평하지 않은가. 제멋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이 당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다.⁷⁾

소세키는 이와 같이 ‘강자의 권리’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두고, 왜곡된 제국이 파생한 권력과 지위를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자본주의의 도입은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상업을 발달시키지만, 전쟁을 목표로 한 개방정책은 배금주의와 계급주의를 파생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정서적 함양은 말살시켜 버리는 행태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 『산시로(三四郎)』(1908)에서는 지식인 히로타 선생과 시골 청년 산시로의 대화에 그의 의식구조를 투영해 볼 수 있다.

임매여서는 안 돼. 아무리 일본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해도 편애가 지나쳐

6) 텍스트 1권, 344쪽.

7) 텍스트 2권, 280쪽.

8) 텍스트 2권, 280쪽.

오히려 해가 될 뿐이야.)⁹⁾

주인공 히로타 선생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우쭐해 있는 시골 청년에게 제국의 이념적 결함을 제시한다. 그의 후기 작품 『마음(こころ)』(1914)에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 드러나지 않게 음지에서 제국으로 인한 정신적 고뇌와 시련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즈 토시히코(伊豆利彦)는 『소세키와 천황제(漱石と天皇制)』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소세키는 천황제 부정론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천황도 국민도 같은 인간이라는 견지에 서서 천황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여 인민을 내리누르는 도구로 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 천황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꾀하는 권력자의 존재에도 민감하여 그런 경향이 점차로 노골적이 되는 것에 천황제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¹⁰⁾ 이즈 토시히코(伊豆利彦)는 제국적 사회의 제도가 개개인의 정신적인 영역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계급주의나 기회주의가 파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세키는 국가가 중용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에 의해 정신적 영역을 침해받는 데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는 곧, 소세키의 제국주의에 대한 의식구도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일본은 군국주의의 이념에 따라 군수물자와 징병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양을 넘어서고자 대동아공영권정책 추진으로 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과정에 발발한 사건으로는 청일전쟁(淸日戰爭 : 1894)과 러일전쟁(露日戰爭 : 1904~1905)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당시 메이지 시대에 큰 축을 형성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전쟁이며 소세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이 없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야심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사건이 청일전쟁(淸日戰爭)이다. 청일전쟁(淸日戰爭)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청과 일본의 전쟁이다. 일본에 있어서 조선의 함락은

9) 텍스트 5권, 292쪽.

10) 伊豆利彦, 1989, 『漱石と天皇制』有精堂, 57쪽.

청을 차지하기위한 중간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청국을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화를 감행한다. 물론,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을 이루려는 정치적 야욕은 국민 개개인의 정서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진행시킨다. 특히, 러일전쟁(露日戰爭)의 종결하기 위해 맺은 포츠머스조약은 일본이 만주와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유도한 조약이다. 이를 계기로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를 일본에 위양하게 됨으로써 철도경영권을 획득하여 식민지 정책의 발판으로 삼게 된다. 일본의 호전적인 기질은 이렇게 개국 이래, 아시아 전역으로 제국적 식민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작품 『나는 고양이이다』는 러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난 직후에 창작된 까닭에 그의 전쟁에 대한 의식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일본은 러시아와 큰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일본 고양이니까 물론 일본 편이다. 가능하다면 혼성 고양이 여단을 조직해서 러시아병을 활꺾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이다.¹¹⁾

소세키의 작품경향으로 보아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에 반대성향을 보이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강한 의욕을 시사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가 없다. 한편, 『산시로』에서는 러일전쟁(露日戰爭)의 승리에 대한 지나친 경망동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청일전쟁(淸日戰爭)과 러일전쟁(露日戰爭)의 승리는 일본국민에게 우월감을 부여해주고 그 자신도 일본 국민으로 우월감을 느끼지만, 일본을 위한 방책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만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1909년 만한여행(滿韓旅行)을 기점으로 『그 후(それから)』(1909), 『문(門)』(1910) 등에서는 기존의 소세키가 주장하던 제국을 상대로 한 신랄한 비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후기 작품 『마음(こころ)』에서도 제국사회의 음지에 가려져 고뇌하는 지식인의 한 모습을 투영하고 있을 뿐이지, 제국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기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11) 텍스트 1권, 216쪽.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메이지 말기에 예리하게 ‘근대화’의 모순과 파탄을 간파하고 있었던 소세키마저 “메이지의 역사는 즉, 나의 역사이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인격적 발전과 메이지 사회의 발전이 바짝 붙어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시카와 다쿠보쿠(石川啄木)와 같은 급진적인 문학자라도 1909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조난에 즈음해서 강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그 업적을 칭송했는 것은 메이지 사상에 있어서 공통분모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¹²⁾고 주장한다. 소세키는 근대화를 도입한 일본이 제국 노선을 이끌어 가기위해 왜곡시킨 자본주의체제와 관주도적인 제국을 부정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제국이념은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만한여행(滿韓旅行)에 앞서 소세키의 시대적 상황과 작품에 대한 경향 분석을 배제하고는 소세키의 의식구도를 파악할 수 없다. 그의 작품의 경향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급격한 과도기에 성장한 그의 자아는 메이지시대의 사회제도과 전쟁이라는 요소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 만한 여행(滿韓旅行)과 소세키의 의식구도의 변화

소세키는 친구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에게 만한여행(滿韓旅行)을 제안 받고 위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하기에 이른다.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가 총재로 있는 남만주철도(南滿州鐵道)는 실질적으로 철도회사이지만, 광범위하게는 식민지 경영을 위해 80여개소의 기관을 설립하고 후에 만주국(滿洲國)을 성립시키는 주요 국책기관이라 할 수 있다. 나카무라 제코(中村是公)의 여행 제안의 목적은 단순히 여행만이 아니라, 만주와 조선 등을 시찰하고 본국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세키의 여행일정은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

12) 丸山眞男, 1976, 『戰中と戦後の間―「明治時代の思想」』みすず書房, 572쪽.

여 한창 식민지개척에 열중하고 있는 만주와 조선 등지이며, 전쟁 후에 개발된 기관 등을 시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만주와 조선은 인적·물적 보급기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점지로, 그곳을 시찰하고 보고할 역할이 주어졌던 소세키는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세키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인솔자에 의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식민지에 개발된 주요 기관을 시찰하게 되고, 그가 주로 기록한 것은 만주와 조선 등의 풍경을 감상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련(大連)에 도착한 그가 한 첫 마디는 다음과 같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의 노동자이고, 한 사람 보아도 지저분한 듯한 데, 두 사람 모이면 더욱 보기 흉하다. 이렇게 많이 모이면 더욱 꼴사납다. 나는 갑판 위에 서서, 멀리서 이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에서, 허참, 이 녀석은 이상한 곳에 왔네. 라고 생각했다.¹³⁾

이렇듯 그의 기행문 『만한 이곳저곳』은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자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적 표현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위의 본문에 인용한 것처럼 노동자를 일본어로 ‘구리(クーリ)’¹⁴⁾라고 호칭한다. 즉, 그는 하층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은연중에 사용하면서 그의 의식구도를 조금씩 표출하기 시작한다.

『만한 이곳저곳』에는 ‘창(チャン)’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온다.

미부는 물론 창창이고, 기름에 먼지투성이가 파고든 변발을 흔들어대면서, 때때로 만주 소리를 낸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말 엉덩이를 어르면서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채찍을 마른 뼈에 가하고, 여행객의 기분을 맞추는 것은, 부인을 꾸짖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했다.¹⁵⁾

13) 텍스트 12권, 234쪽.

14) coolie, cooly, 인도와 중국에 와 있는 유럽인이 현지인의 날품팔이, 짐꾼 노동자에게 붙인 이름.(텍스트 12권, 683쪽 주석인용)

‘창창(チャンチャン)’은 청일전쟁(淸日戰爭)이 승리한 후에 미개한 중국인을 경시하는 의미로 부르던 것에서 유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세키는 만한 여행(滿韓旅行)에서 풍경을 감상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관망하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소세키가 식민지하에 있는 중국인을 그런 어조로 부른다는 것은 전쟁을 치른 그들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느끼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그 밖에 ‘명동련(鳴動連 : 더러운 마차를 끄는 중국인 육체노동자의 무리를 칭함)’이라고 경시하는 어투를 쓰는 행동양상은 그의 전쟁에 대한 의식구조를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만주지역을 여행하면서 ‘더럽다(汚い)’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아닐 것이다. 또, 『만한 이곳저곳』에는 ‘로스케(露助)’¹⁶⁾가 종종 언급되는데,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과 적국에 해당하는 러시아 사람을 일컬어 ‘로스케(露助)’¹⁷⁾라고 하는 것에 기인한다. 최명숙(崔明淑)은 서양과 동양의 차별적 용어 및 차별의식에 대해서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¹⁸⁾라고 표명하기도 한다. 『만한 이곳저곳』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멸시적 표현이 노출되면서 소세키 자신은 전쟁과 무관한 존재임을 표출한다. 국가적 소명을 안고 간 소세키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비로소 그의 전쟁의식까지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와 조선은 러일전쟁(露日戰爭)이 종결되자, 전역에 걸쳐 식민지의 팽창정책을 위한 기관들이 한창 세워지고 개발되고 있었지만, 그 곳에는 여전히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최명숙(崔明淑)의 ‘대조(對照)의 묘(妙)’¹⁹⁾는 만주와 조선에서 일본이 개발한 것과 여전히 남아 있는 전쟁의 흔적을 비교하면서 식민지의 풍경을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윤상인(尹相仁)은 “소세키가 ‘사회적 존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은근한 바램을, 이런 일본의 식민지경

15) 텍스트 12권, 336쪽.

16) 텍스트 12권, 235쪽.

17) 텍스트 12권, 235쪽.

18) 최명숙, 1997, 앞의 논문, 91쪽.

19) 최명숙, 1997, 앞의 논문, 88쪽.

영의 부산물인 부랑자들에게 맡긴 것은 참으로 알맞은 사실이다”²⁰⁾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식민지경영의 부산물’은 중국에서 보게 된 ‘내지인(内地人)’을 말하며 소세키는 그러한 ‘내지인(内地人)’을 이용하여 자신의 비겁함을 회피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식민지 현장 그대로를 체감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다음은 러일전쟁(露日戰爭)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그것들의 상처에서 나오는 원한의 목소리가 온 대련에 울려 퍼질 만큼 섬뜩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이 일대를 도깨비저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²¹⁾

러일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병원에서 병사를 수용할 수 없어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탓에 죽음을 맞이한 병사들의 원한으로 생긴 일화이다. 그만큼 잔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끔찍하다(すさまじい)’라는 표현 외엔 식민지정책에 대한 어떠한 감정 이입도 없다. 다음은 전리품 진열소(戰利品陳列所)를 시찰하는 내용이다.

이 진열소만의 기재(記載)로도, 20장이나 30장의 매수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체로 잊어버렸다.²²⁾

전리품 진열소는 러일 양군이 전쟁 중에 사용한 무기, 전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진열한 곳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다’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야말로 전쟁자체에 무감각한 표현이며, 아무 관심도 없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그가 주장하던 국민의 정신적 영역을 침해하는 제국의 부정은 만한여행(滿韓旅行)을 기점으로 또 다른 소세키의 행동양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고미야 도요타카(小宮豊隆)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에서 “자유로운, 거리낌 없이, 아무리 제멋대로여도 허락되는 세

20) 尹相仁, 1992, 앞의 논문, 246쪽.

21) 텍스트 12권, 263쪽.

22) 텍스트 12권, 281쪽.

계가 나타나고”²³⁾라 평가하면서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의 그의 행동은 편한 여행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소세키는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 자신의 여행의 기본만 만끽할 뿐이지, 식민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는 단지, 승전지라는 이유 하나로 일본인이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다. 소세키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조식 때 보이가 말하기를 이 부근에서는 조선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조선사람 쪽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청일전쟁 때와 러일전쟁 때 통역의 필요 때문에 비롯되다.²⁴⁾

소세키는 전쟁의 흔적을 위의 내용과 같이 태연하게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세키는 1909년 10월 18일 「오사카 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의 만한 시찰담 『滿韓視察談』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번 여행에서 감탄했던 것은, 일본인은 진취 기상이 풍부하고, 빈곤 세 대이면서도 분수에 맞게 철저하게 발전해 간다는 사실과 그것에 동반한 경영자의 기개입니다. 만만을 주유해 보면 과연 일본인은 믿음직한 국민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따라서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다. 이것에 반해 중국인과 한국인을 보면 굉장히 가엽게 여겨진다. 다행히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²⁵⁾

유상희(柳相熙)는 이 부분에서 ‘소세키는 만철 총재 나카무라의 의도대로 滿韓旅行을 “터닝 포인트”로 하여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²⁶⁾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세키에게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온 것은 이렇듯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만한여행(滿韓旅

23) 小宮豊隆, 1938, 『夏目漱石』 岩波書店, 63쪽.

24) 텍스트 20권, 123~124쪽.

25) 텍스트 15권, 268쪽.

26) 柳相熙, 2000, 위의 논문. 564~565쪽.

行)은 사회적 제도의 틀에 맞추어, 제도에 굴복한 결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처럼 소세키는 전쟁의 흔적을 보고서도 전쟁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에 대한 의식구도가 전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이즈 토시히코(伊豆利彦)는 “서구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적 우월감’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보인 소세키도,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는 둔감하고, 자신도 또 ‘일종의 제국주의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²⁷⁾라고 지적한다. 소세키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해 반감의식을 가지면서도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이 없다. 만쇼 요코는 『만한 이곳저곳』에서 “서양인의 질문에 그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위화감’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²⁸⁾ 그의 ‘마음의 불편함’은 서양이 전쟁에 승리하여 식민지팽창정책의 진두에서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이며, 일본도 또한 전쟁에 승리하여 우위에 서야만 하는 호전적 기질이 강박관념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토 토시히코(伊藤利彦)는 “나가 무라 제코(中村是公)에 대한 의리와 신문사에 대한 약속도 있어서 계속 썼다고는 해도, 소세키에게 이것은 결코 마음이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²⁹⁾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 “소세키는 내키는 대로 솔직하게 감상을 기술하고, 일본인의 진취적 기상을 인정하면서도 식민지주의자처럼 공언공론의 오르내림은 없는데 오히려 애국자로서의 체면이 있었다”³⁰⁾는 의미는 그가 내세우는 국가주의적 의식구도와 ‘결코 마음이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의 의미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만약 소세키가 내키지 않았다면 ‘진취적 기상’에 대한 의미와는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요네다 토시아키(米田利昭)는 “이 『만한 이곳저곳』은 일본국내의 사태에

27) 伊豆利彦, 1989, 『漱石と天皇制 - 「漱石とアジア」有精覚, 251쪽.

28) 滿生洋子, 2005, 위의 논문, 125쪽.

29) 伊豆利彦, 1989, 위의 책, 259쪽.

30) 瀬沼茂樹, 1970. 『夏目漱石』東京大學出版社, 174~175쪽.

대해서는 상당히 양심적으로 반응한 소세키마저도 제국의식에 몰들어, 중국인 멸시를 피할 수 없었던 예로서 잘 들 수 있다”³¹⁾고 표명하고 있다. 그의 잠재적인 제국의식이 무의식중에 중국인을 멸시하는 형태로 표출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운명적 이끌림이었을 것이다. 소세키의 기존의 의식구도가 만한여행(滿韓旅行)으로 차별되는 것은 메이지를 겪어 온 그의 근본적 근성이 또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잠재의식’ 속에서 ‘기억’의 한 형태로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한 순간에 사람의 인격이나 심성이 변화한다는 논리보다는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호전적 경향이 군국주의적 의식구도로 표출된 것일 뿐이라고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자신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내면에서 현실로 끌어내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4. 소세키의 의식구도변화에 대한 요인분석

소세키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사회 제도권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이행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소세키의 의식구도를 분석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함에는 틀림이 없다. 소세키의 의식구도를 분석하려면 만한여행(滿韓旅行) 이전의 그의 의식구도에 대한 분석과 비교 또한 요구된다.

그렇다면, 소세키의 작품 『도련님』의 ‘강자의 권리’³²⁾를 상징하는 사회적 제도권에 대한 그의 기존의 부정적인 호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그는 『산시로』에서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등국(一等國)’³³⁾이라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국민에게 일침을 가한다. 이러한

31) 米田利昭, 1968, 『漱石の滿韓旅行』, 『夏目漱石』有精堂, 61쪽.

32) 텍스트 2권, 280쪽.

33) 텍스트 5권, 291쪽.

그의 행동원리는 제국의 결합을 극복하기 위한 동일한 방법론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나의 개인주의(私の個人主義)』의 ‘자기본위(自己本位)’에서 그 의문점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렇지만 자기본위(自己本位)라고 하는 그 때 얻은 나의 생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 씩 조금 씩 강해집니다. 저작적(著作的) 사업으로서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때 확실히 켜 자기(自己)가 주(主)가 되어서, 타(他)는 객(賓)이라고 하는 신념은 오늘 나에게 상당한 자신감과 안심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연장선으로서 오늘날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³⁴⁾ 그의 실패한 ‘저작적(著作的) 사업’은 만한여행(滿韓旅行) 이전이라 볼 수 있으며, 그 후 ‘자기본위(自己本位)’를 확고하게 정립하게 되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는 제도권에 편승하여 국가의 침략적 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아시아의 식민지의 고통과 시련보다 일본이 우위가 되는 ‘자기본위(自己本位)적 성향’이 있음을 이즈 토시히코(伊豆利彦)는 지적하고 있다. 소세키는 『나의 개인주의』에서 ‘타인본위(他人本位)보다는 ‘자기본위(自己本位)’를, 『현대 일본의 개화(現代日本の開化)』에서는 ‘서양은 강한 것’이라 ‘일본본위(日本本位)’의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고 언급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친다. 일본은 제국 서양을 따라잡아야만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있고, 제국 서양을 일본이 모방하여 답습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껴 말하면, 이러한 양상들은 서양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말하며, 이는 곧 제국을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와 같은 ‘자기본위(自己本位)’, ‘일본본위(日本本位)’, 러일전쟁 이후 ‘일등국(一等國)’이라는 언급은 제국 일본인들 누구나가 갈망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적 사회와 전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같이하고 있는 소세키 자신도 인정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자기본위(自己本位)’의 내재적 감성은 사회적 제도의 저항과 함께 서양열강에 대한 도전을 위한 행동양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사

34) 夏目漱石, 1994, 『私の個人主義』, 『漱石全集16巻』, 596~597쪽.

회적 제도의 부정적인 의식구도는 국가의 주체적 사상 즉,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제국주의노선의 선두주자인 서양열강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호전적 성향을 서양제국주의와 차별화된 방법론의 하나로 ‘자기본위(自己本位)’ 혹은 ‘일본본위(日本本位)’라는 의식구도로 표출하고 있다.

아라 마사히토(荒正人)는 「소세키(漱石)」에서 “그렇게까지 영국인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영국이 싫다고 말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³⁵⁾고 지적한다. 이처럼, 소세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함구는 전쟁에 편승하여 표면적으로 찬미나 선동은 하지도 않을뿐더러, 전쟁의 책임론마저도 의식적으로 회피하는 비접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함구는 묵시적으로 제국을 인정하는 결과로 아시아 지역은 식민지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지,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극히 희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또 아라 마사히토(荒正人)는 「해설(解説)」에서 “그는 러일전쟁의 승리를 손 놓고 즐거워할 정도로 소박하지는 않았지만, 주간 「평민신문(平民新聞)」에 대표되는 전쟁 비판자 쪽에 자신을 강하게 정착시킬 정도의 극심한 반전주의자도 아니었다”³⁶⁾고 지적하고 있다. 전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국가 간의 쟁탈전이라 한다면, ‘자기본위(自己本位)’ 혹은 ‘일본본위(日本本位)’를 내세우는 소세키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과히 일본을 위한 것으로 결코 중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춘일(林春日)은 『일본근대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日本近代文學における朝鮮像)』에서 “오로지 인간내부, 게다가 예고이즘과 이미지 풍경을 향해 찌르고, 아무리해도 안 되는 인간의 보기흉한 ‘벽’을 겹겹이 만들어 갔다는 것도, 이런 위치에서의 발상과 내부에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³⁷⁾라

35) 柳田泉外編, 1961, 『座談會明治文學社(荒正人「漱石」)』 岩波書店, 431쪽.

36) 荒正人, 1973, 「解説」, 荒正人·伊藤整編, 『漱石文學全集 10』, 集英社, 505쪽.

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박춘일(朴春日)은 소세키가 만한여행(滿韓旅行)에서 당면한 ‘제국주의의 본질’ 즉, 제국팽창주의를 자각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인 이유가 ‘눈 뜬 장님’처럼 감상에만 젖어 있을 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메이지 유신의 반세기를 함께한 소세키가 국가적 제국주의에 함락이 안 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국주의 및 전쟁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의 그 시대의 역사관이나 시대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부로 스며들고 동화되어 만한여행(滿韓旅行)의 소세키의 모습으로 표출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소세키는 「점두록(點頭錄)」에서 군국주의 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그렇게 하여 이 영향은 가령 이번 전쟁이 정리되어도, 쉽게 그들의 뇌리로부터 뽑아낼 수 없다. 단순히 과거의 경험을 통절하게 기억해야만 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로 뽑아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배려로도 도저히 그 영향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³⁷⁾ 이는 서양의 전쟁에 대한 군국주의의념을 언급한 내용이지만, 「점두록」에서 소세키는 서양의 전쟁을 관망하는 자세로 서양에 대한 군국주의의념을 언급하면서, 전쟁의 경험이나 흔적은 인간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내재된다고 밝히고 있다. 소세키가 살아온 일본도 또한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중심에 있었고, 그때 그 당시의 ‘기억’은 그대로 소세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다고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의 서양 체험과 만한여행(滿韓旅行)은 형식적으로는 문명에 대한 시찰이지만, 서양 체험이 열등감으로 정체성을 갈급한 것과 달리,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상당한 우월감과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서양의 우월함도 또한 그 근원에는 전쟁이라는 전제가 성립하며, 일본의 우월함이라는 것도 전쟁이라는 요소가 항상 뒤따름을 알 수 있다.

만한에서의 그의 시찰을 일본을 위한 혹은, 국민을 위한 시찰의 일종이라

37) 朴春日, 1969, 『日本近代文學における朝鮮像』未來社, 87쪽.

38) 텍스트 16권, 636쪽.

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제국 일본에 대한 기여도가 성립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이나 일기에는 소세키의 정신적 심경 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으나, 『만한 이곳저곳』은 제도권에 의한 형식적 기행문의 형태로서 심정적 표현에는 갈급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만한 이곳저곳』은 소세키가 일본인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할 뿐이다. 소세키의 소설이나 서간을 살펴보면, 금력과 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지극히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발상에서 파생된 것뿐이며, 결과적으로 소세키는 국가적 이념인 제국주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한 이곳저곳』에서처럼 제도에 순응하는 행위의 발로는 제국을 옹호하고 있는 의식구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세키와 아시아(漱石とアジア)」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진출의 최전선 지역을 여행했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국가주의적 권위주의 질서에 밀려들어 그것에 함락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⁹⁾고 주장한다. 이즈 토시히코(伊豆利彦)는 만한 여행(滿韓旅行)의 제국주의적 산업시찰이 자발적인 의도가 아니라 시대 상황에 의한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소세키의 제국주의적 의식구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소세키의 변화가 만한 여행(滿韓旅行)의 환경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엔 너무 단순한 결과일 수 있다. 그의 내부적 의식세계는 그가 의도한 바와 달리 메이지가 만들어 놓은 ‘기억’이라는 매개조건이 성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한여행(滿韓旅行)은 메이지시대에 대한 ‘기억’이 ‘잠재의식’ 즉, 무의식세계에서 물리적 표상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소세키는 만주와 한국이 식민지 경영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전쟁의 폐해를 자각하기보다는 일본의 우월함과 기개를 느낀다. 이 점은 그의 전쟁에 대한 이념이 단지 그가 「점두록(點頭錄)」에서 밝힌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에게 있어 ‘수단’은 단지 도구적인 용어일 뿐

39) 伊豆利彦, 1989, 앞의 책, 233쪽.

감성적 의식구도는 추호도 없다. 소세키가 메이지 시대의 사회적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의 체험과 ‘기억’은 그를 제국적 인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유추된다. 따라서 그가 살았던 메이지시대의 제국주의노선은 소세키가 의도한 바와 달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기억’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그는 제국주의노선을 목표로 하는 일본이란 나라의 구성원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세키의 ‘기억’은 흔히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규칙적으로 표출되는 ‘기억’이 아니라, 오랜 기간 깊이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내재된 ‘기억’은 의식이 접근할 수 없고, 개인마저 자각할 수 없는 잠재 의식화된 ‘기억’의 일종이며, 소세키의 제국적 의식구도도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기억’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세키는 전쟁에 직접 종군한 것도 아니며, 단지 전쟁을 치르는 나라라는 시대적 상황을 체험한 것뿐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소세키의 의식세계는 만한여행(滿韓旅行) 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해 무의식중에 동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그의 제국적 의식은 그가 의식조차 할 수 없는 정신적 공간 속에서 아무런 자각 없이 그의 뇌리 속에 ‘기억’의 한 형태로서 내재되어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그에 대한 논평으로는 ‘제국주의적 우월감’ 또는 ‘민족주의자’, ‘애국자’ 등 다양하지만, 그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방법론을 유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만한여행(滿韓旅行)을 통해 소세키는 ‘잠재의식’ 속의 의식구도에 대한 자각과 변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5. 결론

소세키의 『만한 이곳저곳』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제도권의 요구에 부응한 기행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소세키가 만한여행(滿韓旅行)을 수락한 사실

은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정책에 일조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만한 이곳저곳』은 풍경과 기관에 대한 설명의 일색이며, 그의 감정은 전혀 이입이 없는 형식적 내용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만한 여행(滿韓旅行)의 소세키는 ‘제국주의적 우월감’을 가진 ‘민족주의적 애국자’에의 모습이라고 기존의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장이 있었다. 만한 여행(滿韓旅行) 이전의 소세키의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양상은 단지 일본을 위해 제도적 모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며, 서구의 제국이념과는 차별화된 ‘일본본위(日本本位)’에 근거한다. 소세키의 ‘일본본위(日本本位)’라는 차별적인 사상의 근원에는 메이지 시대와 전쟁이라는 요소가 항상 동반된다는 것, 이는 그의 사상적 변화의 요인을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된다. 즉,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잠재의식’ 속에만 존재하던 제국적 의식구도가 새롭게 변화한 의식구도의 소세키로 재창출되는 기점이 된다. 그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이제까지 소세키의 무의식세계 속의 ‘기억’을 현실이라는 물리적 표상으로 발현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의 의식구도의 변화는 만한여행(滿韓旅行)을 계기로 무의식상태의 ‘기억’이라는 매개요인이 그의 잠재된 의식세계를 자각시킨 결과 발생하는 행동양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만한여행(滿韓旅行)은 그의 사상적 이념에 대한 변화에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 이 논문에서는 소세키가 이제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제국주의적 ‘기억’이라는 증후가 무의식세계, 즉 ‘잠재의식’으로 저장되고, 그 ‘잠재의식’ 속의 제국적 의식구도가 발현된 것이 바로 만한여행(滿韓旅行)이었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 <텍스트> 夏目漱石, 1994, 『漱石全集』, 岩波書店, 1~29卷(別卷 포함)
- 柳相熙, 2000, 「近代日本文人の 韓國認識 - 清日戰爭에서 韓日合邦까지」, 『일본학보』.
- 荒正人, 1961, 「漱石」 『座談會明治文學社』, 岩波書店.
_____, 1973, 「解説」, 荒正人・伊藤整編, 『漱石文學全集 10』, 集英社.
- 伊豆利彦, 1989, 『漱石と天皇制』, 有精堂.
_____, 1989, 「漱石とアジア」, 『漱石と天皇制』, 有精堂.
- 井上百百合子, 1953, 「夏目家と塩原家」, 『國文學』, 學燈社.
小宮豊隆, 1938, 『夏目漱石』, 岩波書店.
瀨沼茂樹, 1970, 『夏目漱石』, 東京大學出版社.
崔明淑, 1997, 「夏目漱石『滿韓ところどころ』 - 明治知識人の限界と「朝鮮・中國人」像」, 『國文學: 解釋と鑑賞』, 學燈社.
朴春日, 1969, 『日本近代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丸山眞男, 1976, 「明治時代の思想」, 『戰中と戦後の間』, みすず書房.
- 滿生洋子, 2005, 「「心細い」漱石 - 漱石のアジア觀と『滿韓ところどころ』」, 『東アジア比較文化研究』 4. 西村好子, 2002, 「寂しい近代 - 『滿韓ところどころ』論」, 『國文論叢』.
米田利昭, 1968, 「漱石の滿韓旅行」, 『夏目漱石』, 有精堂.

■日文概要■

夏目漱石の意識変化に対する研究

昔貞姫

漱石の『満韓ところどころ』は彼が中村是公の勧誘を受諾しながら制度圏に抵抗した彼の理念に転換を予告する作品である。この紀行文の目的は日露戦後、植民地の開発現場である満州と韓国を日本に知らせるためだった。漱石の満韓旅行からは既存の社会的制度を否定する意識構図と異なる意識世界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る。『満韓ところどころ』は風景と機関に対する説明だけの形式的な内容がほとんどで、漱石が自分の意識構図を記述することは意図的に回避しようとした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しかし、漱石の内地人を軽視する言語駆使と植民地に対する無感覚な表現は日本の帝国主義理念と戦争を意図的に黙認していると判断できるところである。満韓旅行の以前、漱石の社会制度に対する否定的な意識構図は日本人としての意識、つまり、ナショナリズムによる結果と見ることができる。彼のナショナリズムと満韓旅行での戦争に対する黙認は‘自己本位’あるいは、‘日本本位’の思想から始まったと言えよう。漱石の満韓旅行は、漱石の‘記憶’の中の明治期と戦争という要素が共存する形で、目の前の現実として「発現」されるプロセスであった。そこでは、漱石の意識構図は戦争が主導する明治期によって形成されたことがわかる。彼の意識構図の転換は無意識のうち‘記憶’という過程を媒介に彼に潜在され、次は、意識世界で彼が自覚的に起こす行動として発現される。本論文では、漱石が今まで自覚できなかった明治精神や戦争に対する意識が、実は、‘記憶’という無意識の世界、すなわち‘潜在意識’により形成されたもので、その‘潜在意識’の中の帝国主義的な意識構図が発現されたのが満韓旅行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www.kci.go.kr

キーワード：明治期、満州、朝鮮、意識構図